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제31권 32호(가해) 2011.7.3

[묵상]



주님,
제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거스르게 되고,
제가 당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당신을 고발하고 배척하는 이들과
관계를 그르칠까봐
외면하고 침묵하기보다는

주님,
당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직접 일러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하시나,
제가 고민함은
제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시간이오니,
끝까지 견디는 이가 받을
구원을 위한 고민이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평회 (강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제주) M.E. Sharing(3제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미리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오진 베드로, 이덕철 루카 & 문부전 & 안영은 권순봉 요안나, 김찬삼 토마스, 크리스티 커밍스 (생) 조애런 글라라
주 일 낮 미사	(연) 오진 베드로, 서효균 요셉, 이덕철 루카, 고준희 제임스, 박송희, 엄익찬 안토니오, 김완태 다미아노, 크리스티 커밍스, 엄은섭 도로테오, 민소예 모니카, 조지 가보라, 장기기증자 (생)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가정, 이영희 카타리나, 유철희 바오로, 채송희 에스터, 신대철 알베르토, 성은혜 실비아, 김영자 토런스 남1반 가정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역대기 하권(2 Chronicles) 24,18-22

화답송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0,17-2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8	108(1절)	108
봉헌	364	255	255
성체	Power of Your Love	307	284
파견	339	108(2절)	283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문화의 변모를 이룩함

이러한 문화적 변모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이 현재의 역사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한 교회가 지닌 복음화의 사명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복음의 목적은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마태 13,33 참조) 복음은 모든 문화들 속으로 스며들어서 내부로부터 생명을 주어, 그것들이 인간과 인간 생명에 대한 충만한 진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자체 내에서부터 생명 문화의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 신자들 중에서, 심지어 교회의 삶 안에서 능동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 신앙이 생명에 관해 윤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분리시켜 버림으로써 도덕적 주관주의와 일종의 부당한 행동방식에 빠지고 마는 일이 흔하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용기를 내어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자 개인, 가정, 교구 내의 단체와 공동체들 안에 과연 생명의 문화가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생명이 지닌 모든 진리들에 봉사하기 위해 밭아 나가야 할 단계들을 확인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비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지적인 모임에서, 다양한 직업 영역에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인간 생명의 기초적인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고 심층적인 교환을 추진해야 한다.

96). 이러한 문화적 변모를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이고 기초적인 단계는 모든 인간 생명이 지닌 비교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양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생명과 자유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재형성하는 것은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진 일이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재화이다. 둘 중의 하나가 훼손된 곳에서는 다른 하나 역시 결국 훼손되고 만다. 생명을 환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곳에 참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를 벗어난 다른 곳에는 생명의 충만성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두 실체들은 둘 사이를 불가분리하게 연결시켜 주는 본질적이고 특수한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다. 진지한 자기 증여인 사랑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가장 참된 의미를 준다. 양심의 형성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유와 진리 사이의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본인이 자주 언급했듯이 자유가 객관적 진리에서 분리되면 굳건한 합리적 바탕 위에서 개인의 권리를 확립할 능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사회가 개인들의 무절제한 의지나 공권력의 억압적인 전체주의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토대가 놓이게 된다.

(◆계속)

우리들의 순교

오늘은 한국의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굳은 신앙과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고 본받기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와 강인한 성격과 굳은 신심을 가진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열여섯의 어린 나이로 조국을 떠나 마카오로 파견되어 펠리핀 등 외국을 전전하며 어렵게 공부하였습니다. 신부로 서품되고 귀국하여 8개월 동안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3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한강변 새남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 삶을 다해서 교우들을 보살피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듣게 되는 복음에서는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박해 앞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과 난관 앞에서도 모든 것을 참아낼 힘과 또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증거자가 될 지혜를 성령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김대건 신부님께서도 순교하시기 전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착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디 설위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천만 바란다.”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순교성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를 기억하는 오늘, 신부님의 순교영성을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입니다.

매로 신부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순교영성을 살고 실천한다는 것이 평범한 우리들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순교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실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과거 신앙의 선조들처럼 피 흘림의 순교를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피를 흘리는 피의 순교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가 필요합니다. “백색 순교”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봉헌의 삶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녹색 순교”란 고통을 극복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교 현장은 바로 가정이요, 직장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자리입니다.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으로 내가 머무르는 자리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안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끊어 버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봉헌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이 바로 오늘날의 순교라고 하겠습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박희자 마리아	채승희 에스터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김은지 탈리안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직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7월

- ◆ 성시간 : 7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남구역
- ◆ 병자 영성체 : 8일(금) 오전 10시부터
- ◆ 성모신심 미사 : 9일(토) 오전 8시30분

☞ 감사합니다. ☜

◆ 7월1일부터 2011년~2012년(6월30일까지) LA 대교구의 사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백삼위 본당에서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새로 조직 되었습니다. 총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새로 합류하신 사목위원들과 함께 본당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합니다.

- 총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 부회장 : 권대만 살베스테, 최기남 야고보,
한창주 요아킴, 고규재 체칠리아
- 총무 : 이남현 막시모
- 부총무 : 박인식 토마스, 정동호 하상 바오로,
권순길 체칠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 재무부장 : 오지희 요안나 ● 복음화부장 : 이영식 크리스토퍼
- 사회복지부장 : 차인수 안드레아
- 소공동체부장 : 박혜경 레나타 ● 시설관리부장:김찬구 요한
- 전례부장 : 김성현 유스티노 ● 조경부장 : 김양금 안나
- 종교교육부장 : 금영도 베드로
- 청소년부장 : 남성철 베네딕도
- 체육부장 : 김용 스테파노 ● 홍보부장 : 현석주 아오스딩
- 감사 : 이병권 파비아노, 이용식 베드로

- 주일학교장 : 이인석 비오 ● 한국학교장 : 김본경 율리아
- 요셉회장 : 신중철 아브라함 ● 안나회장 : 한춘선 루시아
- 양업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 성모회장 : 최길숙 요세피나
- 제대회장 : 오창애 안나 ● 대건회장 : 송호창 요셉
- 자모회장 : 윤은경 미카엘라 ● 원서회장 : 김도형 에우제니오
- 배론청년회장 : 광수민 히메리오 ● 대학부 : 김낙기 바오로

◆ 유아세례받은 어린이들 축하합니다

7월2일(토) 오후 6시 4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김승리 리디아 ● 김혜원 사라 ● 서윤아 미카엘라
- 최지니 레나

◆ 백삼위 울뜨레아 단합모임

본당 꾸르실리스타들의 단합과 친선을 위해 울뜨레아 간사(이명순 크리스티나) 덕 뒹에서 초여름날 저녁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많이를 참석하셔서 울뜨레아 발전을 위해 담소를 나누기 바랍니다.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되어있습니다.

- 일시 : 7월4일(월, 독립기념일) 오후 4시부터
- 장소 : 1911 Belmont Ln. Redondn Beach, CA 90278
- 연락처 : ☎(310)749-0276 이명순 크리스티나

◆ '야외 십자가의 길' 개인 봉헌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숙원사업의 하나인 '야외 십자가의길' 조성 관련, 제단체들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뜻있는 개인의 봉헌을 기다립니다. * 문의 : 본당 신부님

◆ 어린이 평일 복사단 모집

- 봉사일시 : 주중 수요일미사와 목요일미사(저녁 7시30분)
- 자격 : 첫영성체한 초등부 어린이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424)903-6637, 본당 수녀님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3일(주일) : 독립기념일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 7월10일(주일) : P.V. 3반(배추우거지국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고천용	국세찬	권오상	김영길	김정순
	김정엽	김정희	김풍길	노찬술	박근식	박봉성
	박완철	박종열	반비오	서성용	소성덕	엄세종
	오세원	원건희	유근태	유영균	유영도	이병우
	이석진	이용식	이철우	이희영	임한나	장영진
	정혜영	지정수	최영신	최진수	한금순	허정자
	홍석인	박제이콧			합계 : \$4,300	
미사헌금 : \$2,866						
성전헌금	강인모	고천용	국세찬	권오상	김영길	김정순
	김정엽	김정희	김풍길	노찬술	박봉성	박종열
	반비오	서성용	소성덕	엄세종	오명섭	오세원
	원건희	유근태	유영균	유영도	이병우	이용식
	이희영	임한나	정혜영	지정수	최영신	최진수
	한금순	홍석인	박제이콧			
합계 : \$3,556.72						
재활용 : \$146.72	한남체인 도네이션 : \$430					

공지사항

- ◆ 주일학교 S.O.E.L.밴드 찬양의 밤에 초대합니다.
- 일시 : 7월22일(금) 오후5시 성당
 - 참석대상 : 주일학교 학생들 뿐만아니라 청년분들과 어르신 신자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격려해주십시오.
 -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 S.O.E.L.(Soul Of Eucharistic Laudation)
- ◆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진행중이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 새학기 주일학교 등록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8월21일~9월11일(등록비 \$20 추가됨)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개강 : 9월11일(주일)
 - 문의 : 이인석 비오 교장 ☎(213)258-8665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 출발 :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남가주 소식

- ◆ 제24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성령쇄신대회
- 일시 : 8월20(토), 21일(일)
 - 주제 :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18)
 - 장소 : 패사디나 시티 칼리지 색슨 오디터리엄 (1570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6)
 - 지도 : बे기현 신부, 이상재 신부, 정현철 신부, 정희옥 신부, 한상만 신부, 황창연 신부
 - 참가비 : \$25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 ◆ 장애인 후원을 위한 작은 예수회 '1일 점심·차' 행사
- 일시 : 7월9일(토) 낮 12시~오후 2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LA 장에시설(올림픽+후버, 1137 Arapahoe St. LA, 90006)
 - 미사 : 낮 12시에 장애인 및 후원회 가정을 위한 봉헌
 - 문의 : 운영이사 노장오 요셉 ☎(213)387-3301
- ◆ 교재용 교수, 주일학교 학생대상 첼로 레슨
- 지도교수 : 교재용 베드로(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석박사, 부산 동아대교수, 첼로/바이올린 교재46권 출판)
 -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녀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 성격과 신체조건에 따라 악기선택을 권해드립니다.
 - (그룹지도 가능) * 문의 ☎(213)550-6203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4(목)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야외 반모임(토런스 파) 7/3(주일) 오후 1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야외 반모임 989-0366 7/24(주일) 낮 12시
	2	이크리스 아카토 619-7763	이크리스 아카토 619-7763 7/9(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7/10(주일) 낮12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김용 스테파노 320-0855 7/15(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326-6982 7/14(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오태환 바오로 750-4051 7/16(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야외 반모임(아이스하우스캐년) 7/17(주일) 오전 8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이병우 마리노 953-7903 7/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P.V.구역 합동 반모임 7/9(토) 오전 10시 라이언 파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합동 반모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합동 반모임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독립기념일연휴	모임 없음
---------	-------

다음 주 단체 모임

신·구 구역장/반장 단합모임	낮미사 후
-----------------	-------

임자님

오늘은 우리나라의 첫 사제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대축일을 이동 경축한다.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피에서 김계준 이나시오와 고 우술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1836년 열여섯 살 때에 모방신부에 의해서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최양업 토마와함께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 남부에 있는 마카오의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공부하였다. 그러다가 1845년 8월 17일 금가항성당에서 패례을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후 국내에 들어와서 성사를 집전하며 선교사 영입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하시게 되었다.

김대건 신부님은 하느님을 그 시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임자'라고 표현하셨다. 말하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임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느님의 종이며 일꾼이다. 종이나 일꾼은 임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임자이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난 보람도 없고, 또한 한번 알아본 후에도 하느님을 배신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 아니 난 것보다도 못하다고 가르치셨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그 임자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올 고난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의회에 넘겨져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고, 가족들조차 거슬러 서로 죽게 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 바로 앞의 구절이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마태 10, 16)"이다. 양들과 이리떼와는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다. 양이 무참하게 죽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임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달라진다. 주님께서 당신 막대와 지팡이로 이리떼를 치시고 양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야말로 아쉬울 것 없도록 쉬게 해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지 않겠는가(시편23편)!

김대건 신부님은 순교를 하시기 전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한바다 하고자 하오. 박해라는 것도 천주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는 게 아니오. 마땅히 주를 위해 힘차게 참아주시오. (중략) 큰 사랑을 가지고 천주를 섬기도록 힘쓰시오. 사랑으로써 한 몸 한 마음이 됩시다. 그렇게 하면 죽은 후 영원히 주님 앞에서 서로 만나 끝없는 즐거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오. 나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이를 바랍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오늘 복음 말씀대로 죽는 순간까지 임자와 함께하며 끝까지 견디셨다.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을 본받아 인생에 어떤 고통과 좌절이 올지라도 임자와 함께하며 끝까지 견디도록 해야겠다.

◆윤준원 마카엘 신부<부산가톨릭의료원원목실장>

내청춘에 건배

장대 같은 비와 작렬하는 햇살을 견디더니 어느새 녹음이 짙푸르다. 돌아보면 내 청춘도 그러했으리라. 세상의 곶은 비나 메마른 사막의 언덕쯤은 겁내지 않고 내달릴 푸른 젊음의 시절이 있었으리라.

청춘의 시절, 난 세상에 떨리지 않을 튼튼한 다리와 불의에 굽히지 않을 다부진 어깨를 갖고 싶었다. 도시의 미끈함 보다는 원시의 생명력을 동경했다. 혁명가나 투사는 아니었지만 불의를 참지 않고 옳은 일의 위험도 피하고 싶지 않았다.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의리에 무거운 남자이고 싶었고 뜨겁고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청춘의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갔다. 세상의 먼지에 젊음의 푸름이 조금씩 바래지더니 귀밑머리에는 어느새 흰 눈이 내렸다. 거침없는 질주 대신 앞 뒤 재는 작은 걸음이 늘었고, 이제 새로운 발걸음은 두렵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다. 그 사이 아이가 크고 사는 집이 넓어졌지만 대신 주름이 늘고 어깨가 처졌다. 눈치 보지 않는 촌철살인의 언어로 살고 싶었는데, 요즘은 손해를 피하기 위한 변명과 취중의 꾸밈이 늘은 것 같다.

젊은 날의 짱짱했던 내 용기와 배짱은 어디로 간 걸까. 어느새 난 청춘을 지나 황혼에 가까워지고 있다. 생자필멸. 누구나 청춘을 지나 황혼을 맞고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젊음의 뜨거운 열기가 순해지고 온유한 너그러움을 가지게 되는 게 인생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나간 청춘을 아쉬워 할 일만은 아니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에 책임을 질 나이. 난 인생의 여정에 그즈음을 지나고 있다.

십자가의 길 14처를 지날 때면 "내 신앙은 지금 몇 처를 지나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세상의 나이는 중년이지만 솔직히 신앙의 나이는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난 것 같다. 하느님께 반항하고 일탈도 감행하다 이제야 믿음의 틀이 생기고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게 됐으니 말이다. 옳거니! 신앙의 사춘기를 지났다면 내 신앙은 지금부터가 '청춘'이다.

세상일에 주눅 들지 않고 싱그럽고 열렬한 사랑의 불꽃을 피울 믿음의 청춘. 그리고 이 정도는 안다. 세상의 청춘은 열정과 패기, 도전이 아름답지만 신앙의 청춘은 겸손과 너그러움, 용서와 절제가 미덕임을. 또,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그리하여 마침내 내 몸과 마음을 오롯이 하느님께 바칠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다. 하느님의 기쁜 사랑을 확인하며 오늘은 이렇게 외치고싶다. "내청춘에 건배"

◆탁은수 베드로<부산MBC 기자>